

2010불교합창페스티벌

치 사

음악을 통해 법음을 전하는 불교음악인의 축제인 ‘2010 불교합창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지금 우리 찬불가는 대중적인 관심과 참여보다는 사찰 합창단과 몇몇 뜻있는 불교음악인의 애정으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신 불교음악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보급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노력과 더불어 창작된 곡을 직접 부르고 전하는 이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합창페스티벌은 쉬운 노랫말로 만들어진 신작찬불가를 중심으로 경연대회가 진행됩니다. 합창페스티벌은 작곡·작사가, 연주가, 성악가 등 불교음악인들 모두가 불교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즐기며 기량을 발휘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스스로 신심을 고취하며 실력을 쌓아온 합창단 여러분들의 축제장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합창페스티벌이 단지 불교음악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모든 불자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작찬불가 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하신 합창단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드리고, 본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관계자와 불교음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불기 2554(2010)년 11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